

펀드 플로우 위클리



김용구 Strategist
yg.kim@yuantakorea.com

김세빈 Research Assistant
sebin2.kim@yuantakorea.com

리밸런싱 착시의 이면, Tech/성장주로 쏠린 수급

주식형 펀드 헤드라인은 리밸런싱 착시, 실질 수급은 정체

지난주(6/8 ~ 6/12) 주식형 펀드(+\$48.3억 → +\$463.6억)는 표면상 순유입이 대폭 확대됐으며 채권형 펀드(+\$281.5억 → +\$162.1억)는 순유입 축소. 다만 주식형 펀드의 외형적 급증은 실제 수급 개선으로 보기 어려움. 미국(+\$87.0억 → +\$481.7억) 순유입 확대의 거의 전부가 Vanguard 500 Index Investor(+\$480억) 펀드로의 유입이며, 이는 6월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전후한 분기 리밸런싱에 기인한 착시. 해당 리밸런싱 효과를 제외 시, 주식형 펀드 전체 순유입은 사실상 0에 가까움. 이외 지역은 일본(-\$12.6억 → +\$13.5억)이 4주 만에 순유입 전환했으며, 한국(-\$4.3억 → +\$10.9억)도 순유입 전환한 반면 EU(-\$5.5억 → -\$17.8억), EM(-\$19.8억 → -\$23.8억) 순유출 지속. 채권형 펀드 플로는 미국(+\$213.0억 → +\$146.5억), EU(+\$50.5억 → +\$21.7억), EM(+\$17.7억 → -\$6.1억) 등 전 지역이 축소. 이는 시장의 우려 대비 상승폭이 적었던 5월 Core CPI/PPI 및 종전 임박 기대로 인해 금리 변동성이 축소됨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또한 후퇴한 결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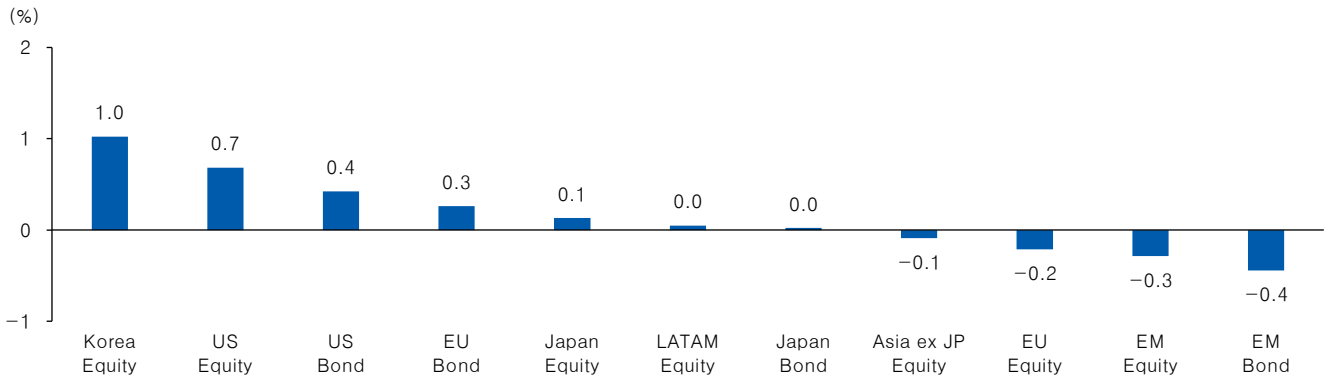
Tech의 수급 독식, 성장주 우위, 우주 테마는 선반영 소강

섹터별 수급에서는 Tech(+0.5%)가 가장 강한 순유입을 기록. 반면 원자재(-0.8%), 커뮤니케이션(-0.6%), 경기소비재(-0.4%) 등은 순유출. 특히 필수소비재(-3.3%)는 3주 연속 순유출에 강도까지 심화되며 구조적 이탈 양상. 물가 안도 및 종전 기대로 재차 성장주로의 쏠림이 발생하며 2주 전 순환매를 되돌림. 스타일별로도 대형 성장(+0.30%)이 순유입을, 대형 가치(-0.26%)가 순유출을 기록하며 성장주의 가치주 대비 우위가 뚜렷. 대형 혼합(+0.66%)은 가장 강한 순유입강도를 보였으나, 이는 전술한 Vanguard 500 Index Investor의 리밸런싱에 기인한 착시. 산업재(+0.05%)의 경우 스페이스X 상장(6/12)을 앞둔 기대감으로 인해 관련 우주항공 ETF에 자금이 선제적으로 유입되었던 데다, 실제 편입 또한 상장 당일이 아닌 상장 후 시점에 이뤄지도록 조정된 결과. 원자재, 에너지(-0.2%)의 순유출은 중동 긴장 완화 기대 속 유가 변동성 하향 안정화에 기인

신중국 내 극단적 차별화, 한국 순유입 - 이외 지역 순유출

신중국 중점 투자 펀드에서는 한국(+0.9%)은 순유입을 기록한 반면 대만(-0.7%), 중국(-1.4%), 인도(-1.4%), 라틴아메리카(-4.5%) 등 이외 지역에서는 순유출 발생하며 극단적 차별화가 확인. 한국은 주초 급락했으나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순유입 전환. 반도체 중점 투자 펀드로의 쏠림 또한 지속. 반면 라틴아메리카는 신중국 중 가장 큰 폭의 순유출을 시현. 원자재·유가 익스포저가 큰 브라질을 중심으로 중동 긴장 완화에 따른 유가 하락이 에너지주에 타격을 준 가운데, 매파적 미국 금리 환경에 따른 신중국 자본 유출과 10월 대선을 앞둔 재정·정치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인도와 중국 역시 신중국 전반의 위험회피 흐름 속에 순유출이 지속됐으며, 대만 또한 순유출 전환함에 따라 AI/반도체 밸류체인 내 한국으로의 수급 집중이 확인

그림 1. 글로벌 주식형/채권형 펀드 지역별 자금 유출입 강도 (주간)



참고: 유출입 강도 = Estimated Fund-Level Net Flow / Net Assets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표 1. 신흥국 지역 중심 투자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출입 강도 및 추이

지역별	1주 전 유출입강도(%)	순유입액 (십억 달러)					
		1주 전	월간	8주간 합	'25년 4분기	'26년 1분기	YTD
글로벌 신흥시장(GEM)	-0.39	-1.5	-2.7	-2.3	8.5	29.5	29.6
대만	-0.73	-0.1	0.1	0.5	-0.2	-0.9	-1.0
라틴아메리카	-4.48	-0.6	-0.9	-0.4	1.2	3.4	4.0
한국	0.93	1.4	1.8	4.0	8.3	28.6	32.5
인도	-1.35	-0.4	-0.9	-2.0	-1.3	-2.3	-4.5
아세안	-0.23	-0.0	0.0	-0.0	-0.1	-0.1	-0.1
중국	-1.40	-0.7	-1.8	-1.8	1.0	-5.5	-7.2
신흥국 총합	-0.29	-1.9	-4.3	-2.1	17.6	52.8	53.4

참고: 06/08~06/12 Estimated Fund-Level Net Flow 기준, Investment Area 기준(자신의 75% 이상 투자해야 하는 Global Category 와 달리 해당 지역에 중점 투자할 경우 정성적 분류 가능)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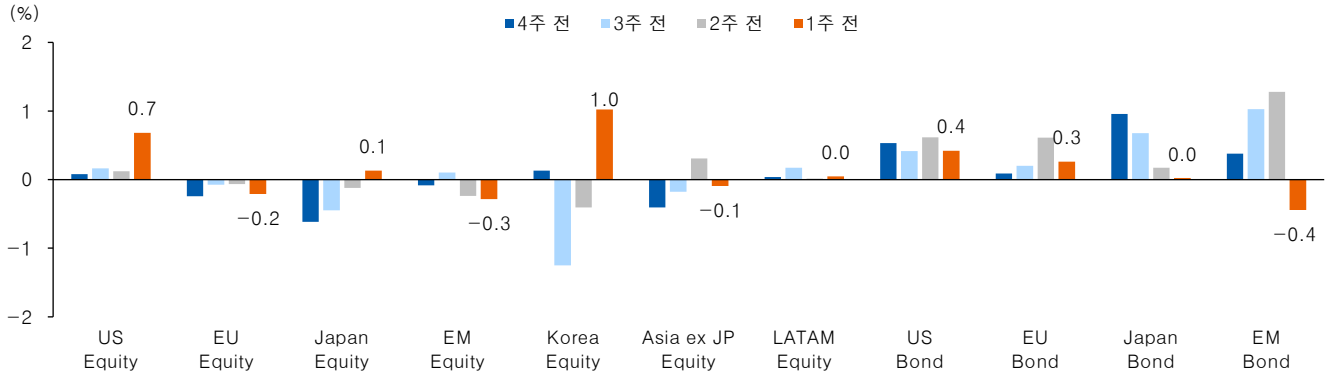
표 2. 글로벌 주식형 펀드 스타일 별 전주 자금 유출입 강도(좌) 및 유출입 현황(우)

스타일	(단위: %)			(단위: %, 조 달러)		
	1주 전	2주 전	3주 전	4주 전	YTD	
대형 성장	0.30	0.01	0.16	0.02	76.3	
대형 혼합	0.66	0.24	0.09	0.02	565.5	
대형 가치	-0.26	-0.07	0.06	0.27	80.5	
중형 성장	0.02	0.13	0.03	-1.25	5.3	
중형 혼합	-0.01	0.06	-0.01	0.14	13.7	
중형 가치	0.39	0.28	0.09	-0.02	38.0	
소형 성장	0.15	0.04	0.62	0.15	2.0	
소형 혼합	0.11	0.16	0.53	-0.60	16.1	
소형 가치	0.16	0.08	0.20	0.28	14.1	

참고: 06/08~06/12 Estimated Fund-Level Net Flow, Equity Style Box (Long) 기준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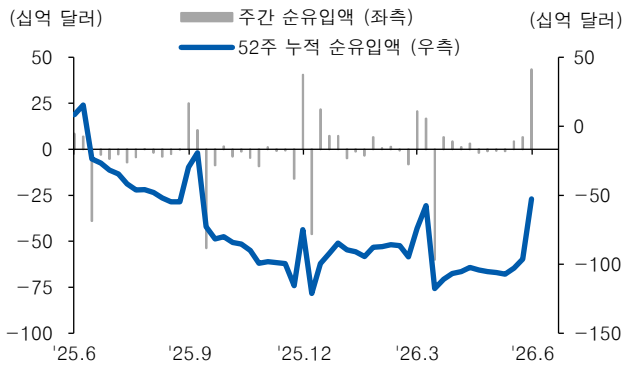
글로벌 펀드 자금 동향 – 지역별

그림 2. 글로벌 주식형/채권형 펀드 지역별 자금 유출입 강도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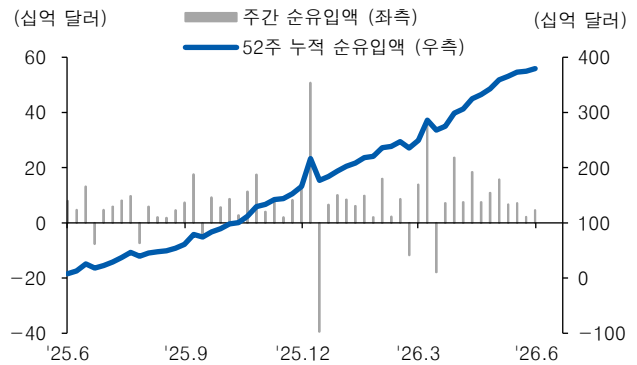
참고: 유출입 강도 = Estimated Fund-Level Net Flow / Net Assets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3. US Equity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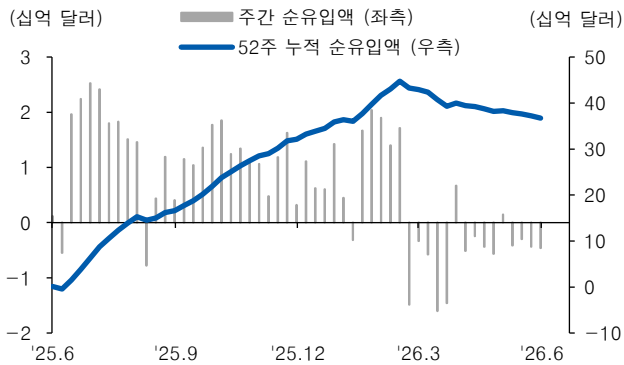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4. US Equity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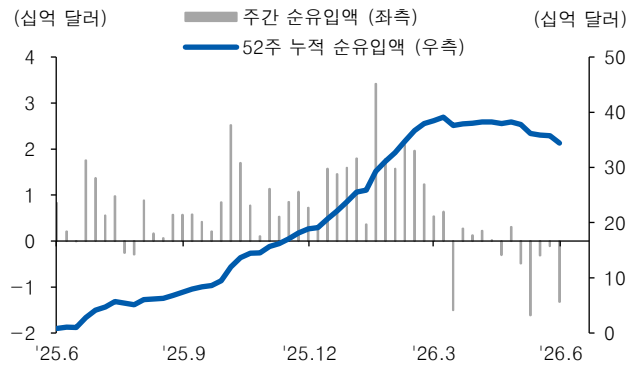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5. EU Equity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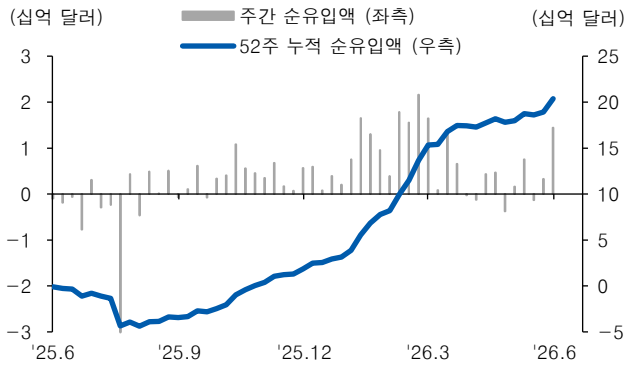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6. EU Equity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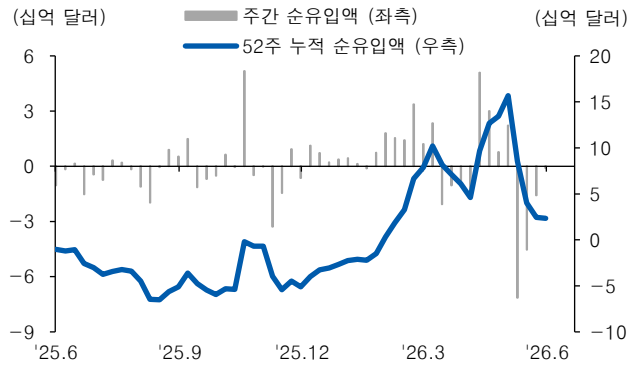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7. Japan Equity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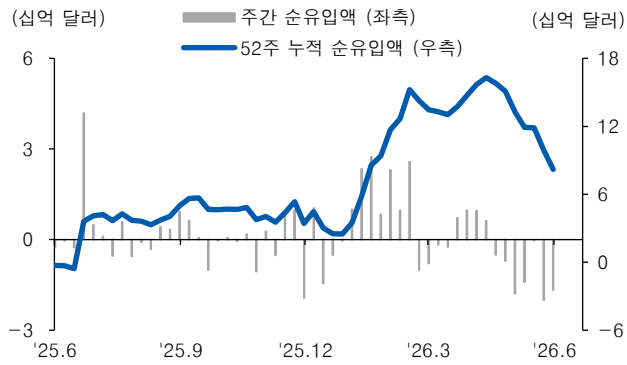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8. Japan Equity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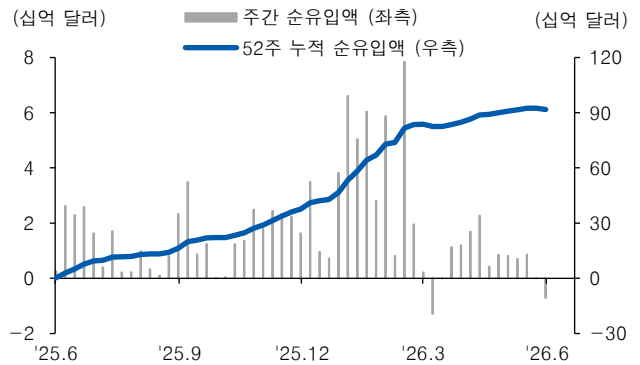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9. Emerging Market Equity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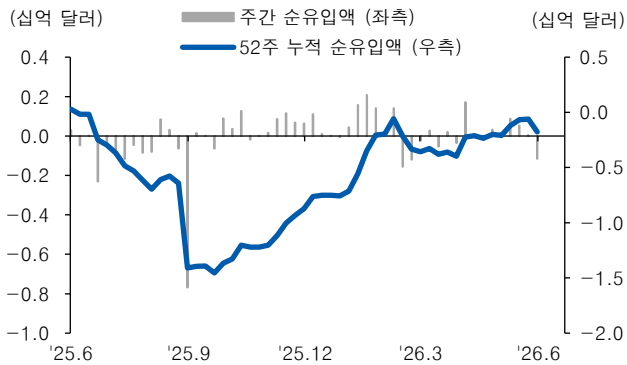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10. Emerging Market Equity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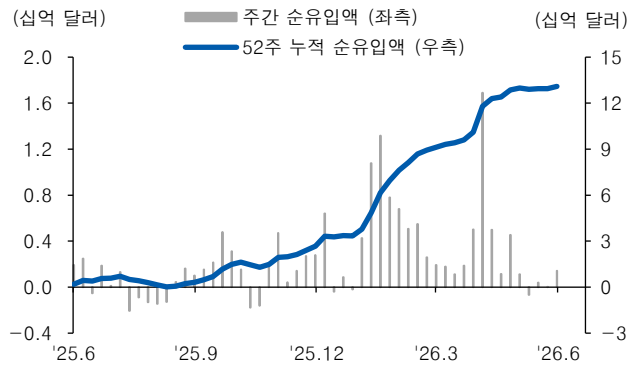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11. Latin America Equity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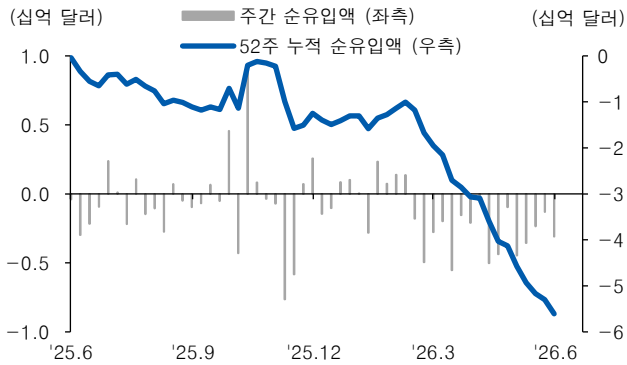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12. Latin America Equity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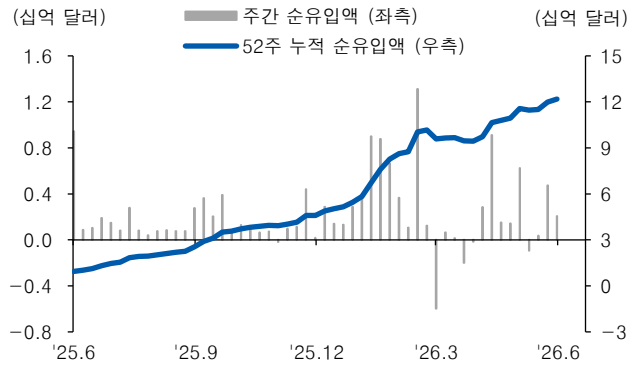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13. Asia ex Japan Equity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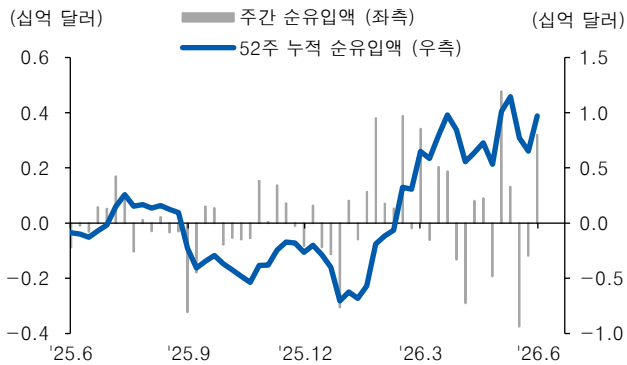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14. Asia ex Japan Equity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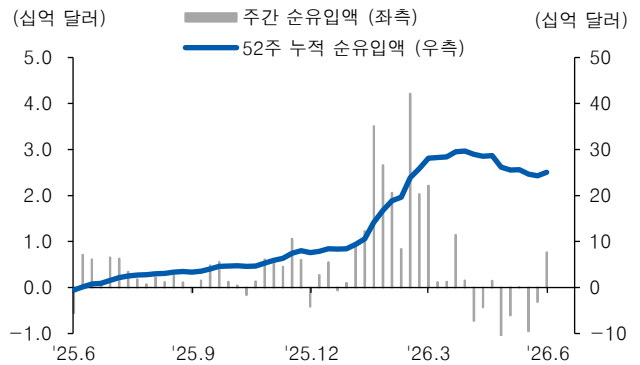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15. Korea Market Equity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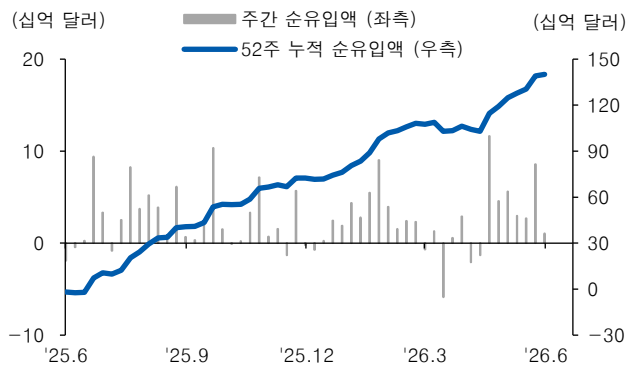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16. Korea Market Equity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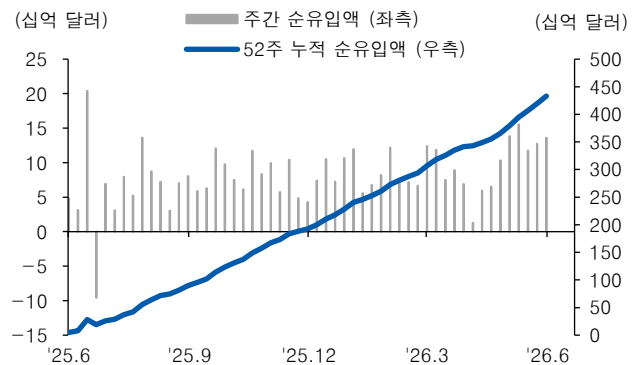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17. US Bond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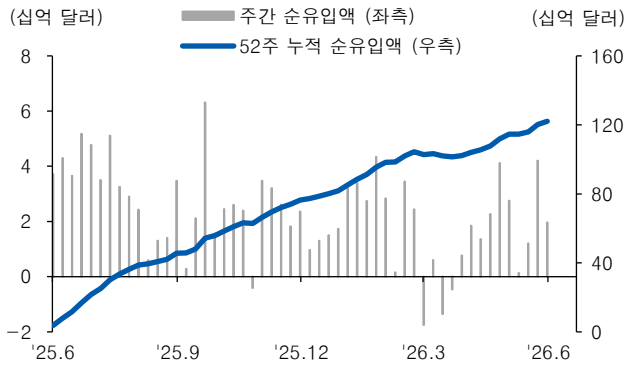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18. US Bond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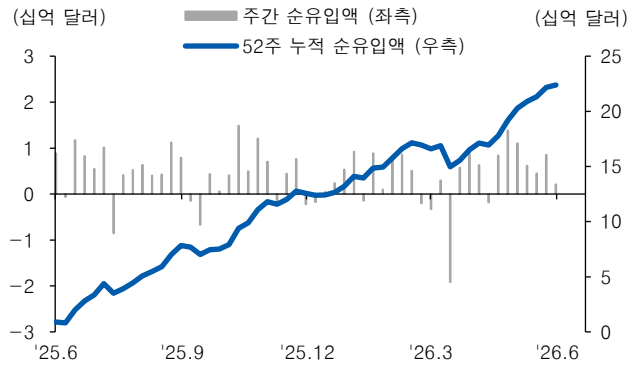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19. EU Bond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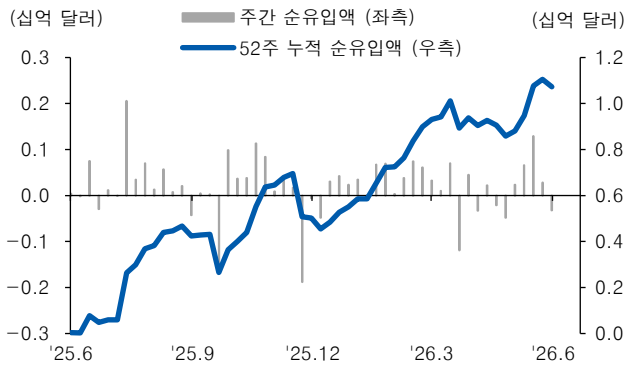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20. EU Bond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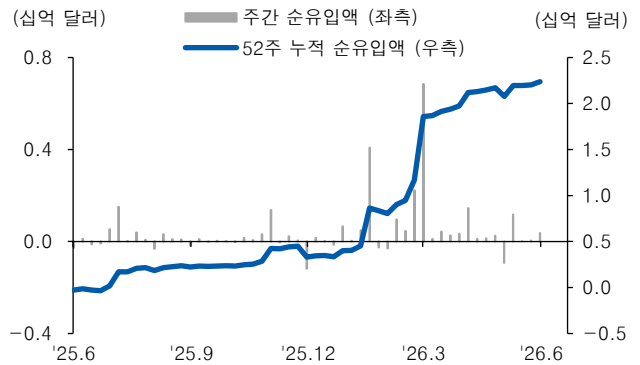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21. Japan Bond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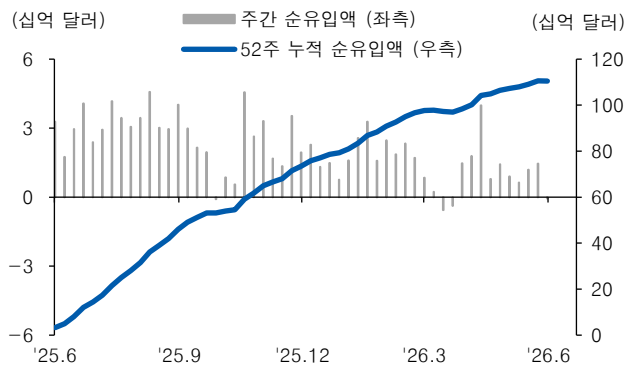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22. Japan Bond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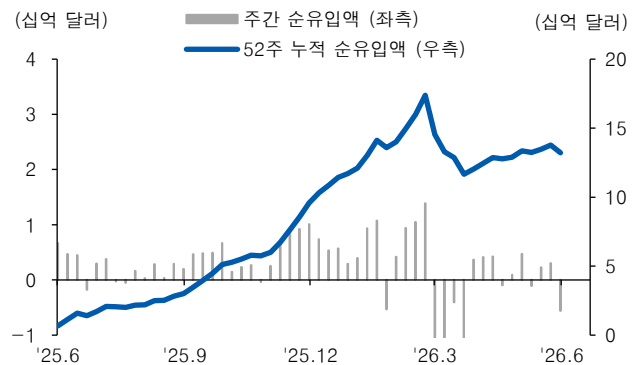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23. EM Bond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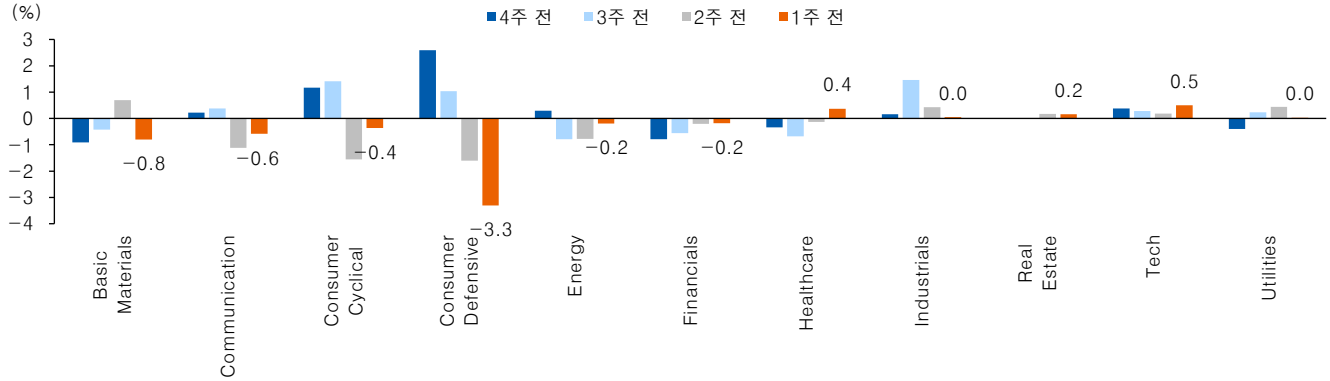
그림 24. EM Bond 순유입 추이 - ETF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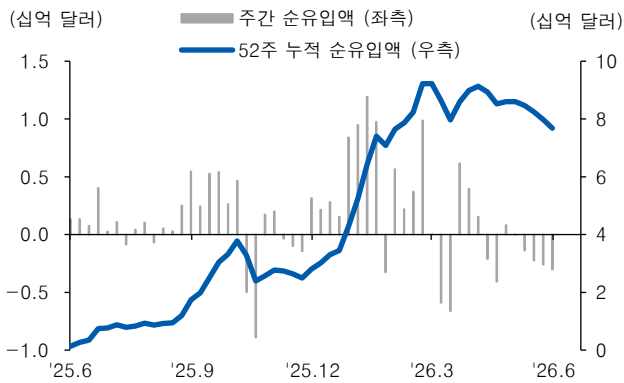
글로벌 펀드 자금 동향 – 섹터별

그림 25. 글로벌 주식형 펀드 섹터별 자금 유출입 강도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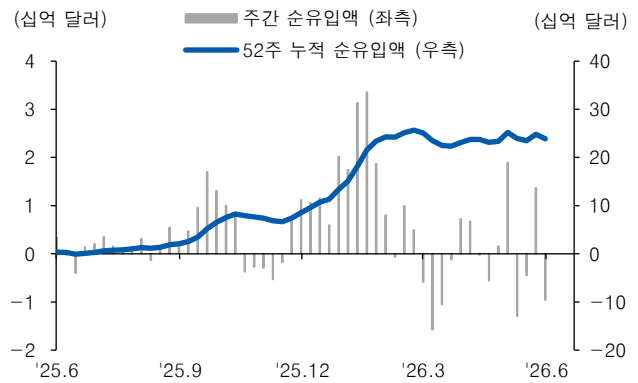
참고: 유출입 강도 = Estimated Fund-Level Net Flow / Net Assets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26. Basic Material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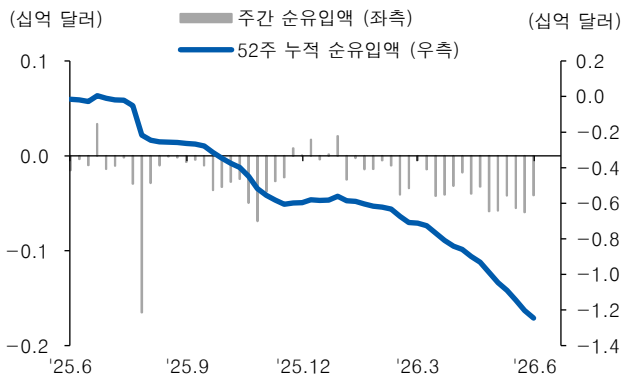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27. Basic Material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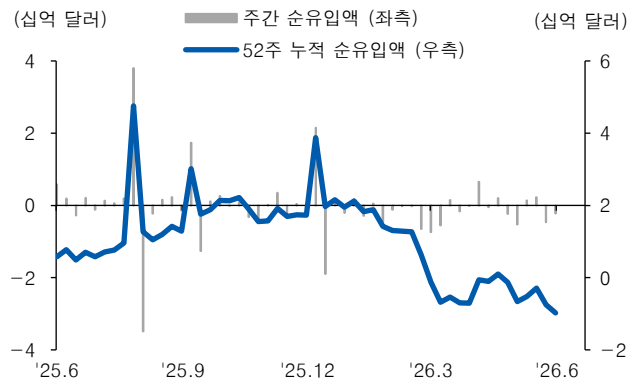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28. Communication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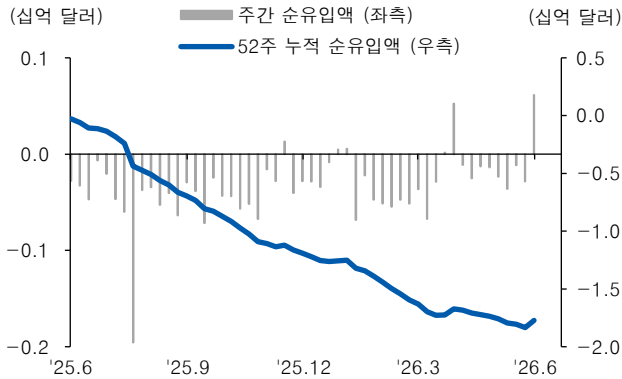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29. Communication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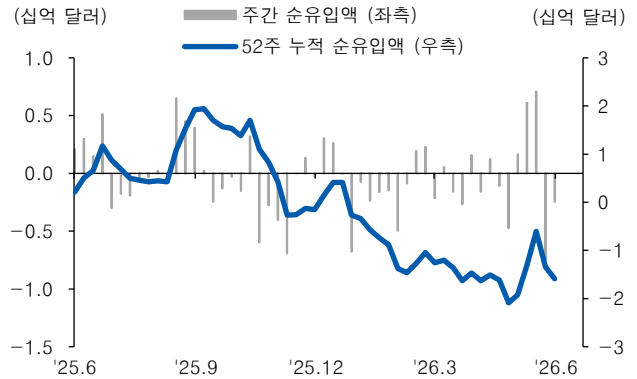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30. Consumer Cyclical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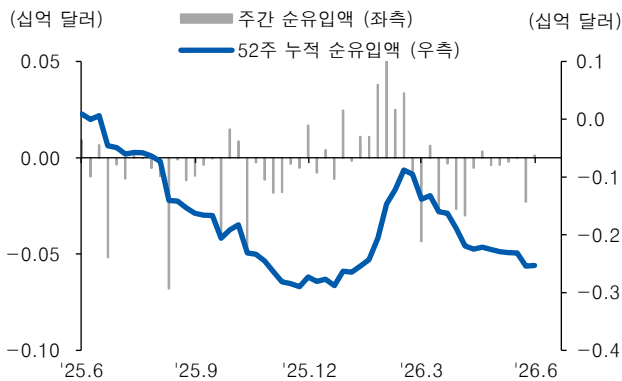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31. Consumer Cyclical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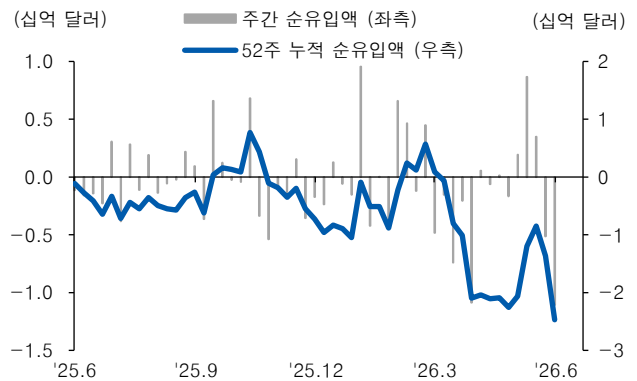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32. Consumer Defensive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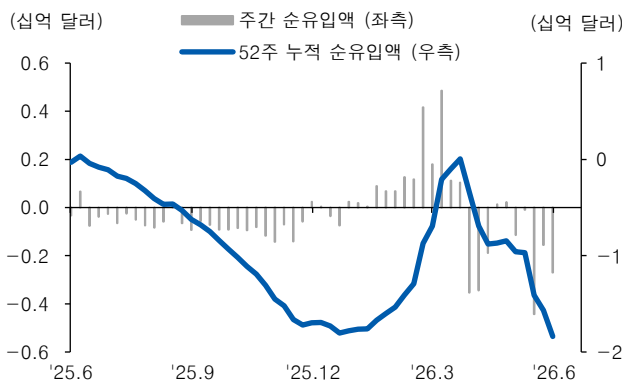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33. Consumer Defensive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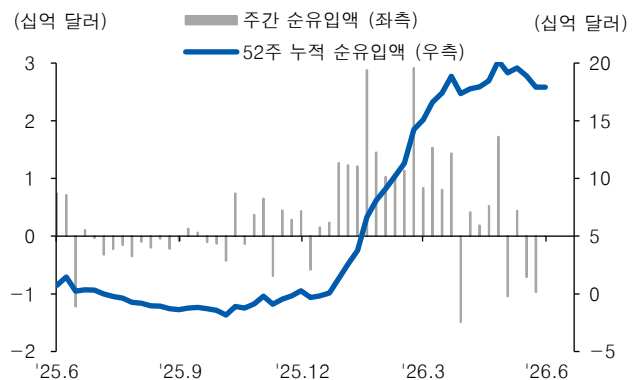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34. Energy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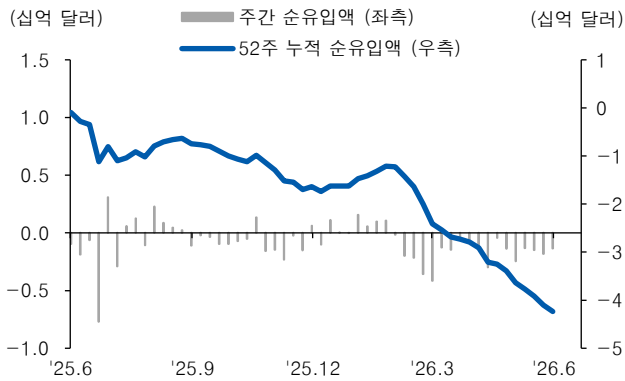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35. Energy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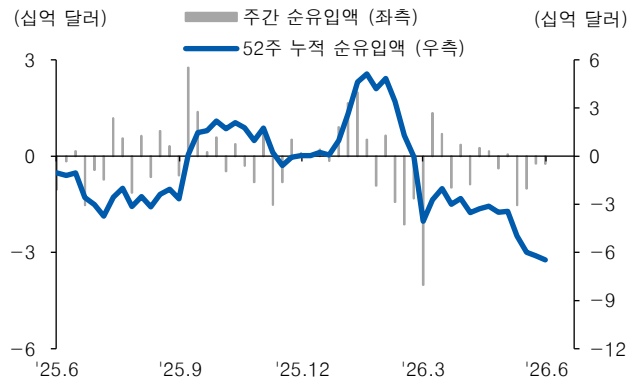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36. Financials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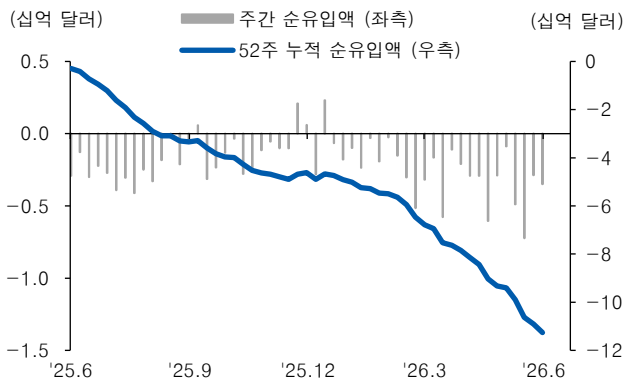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37. Financials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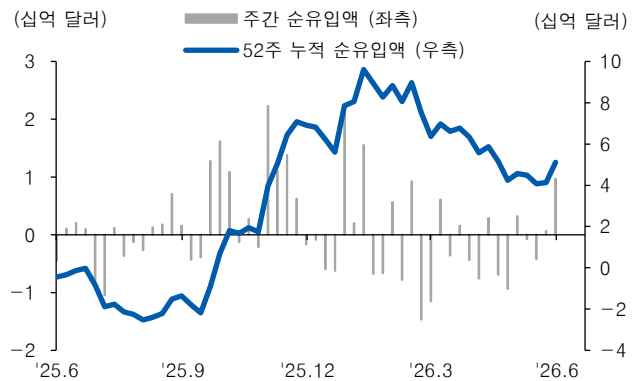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38. Healthcare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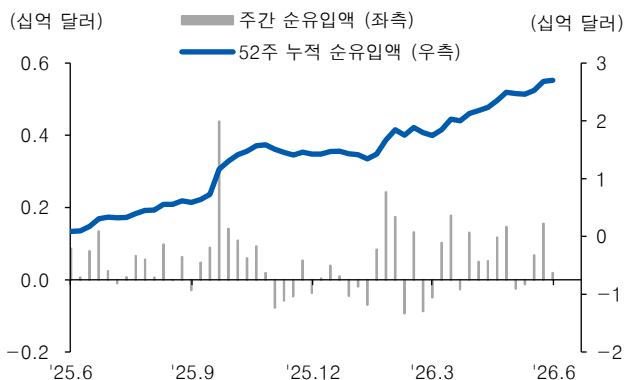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39. Healthcare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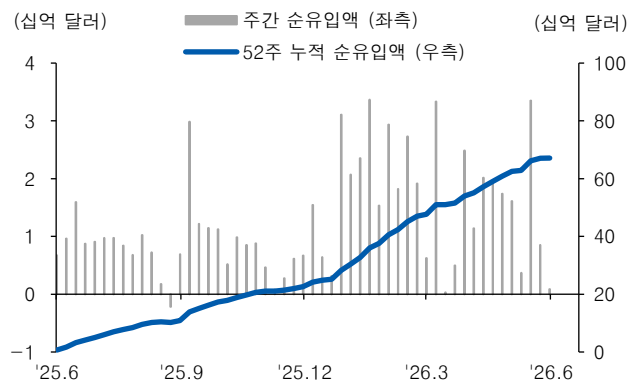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40. Industrials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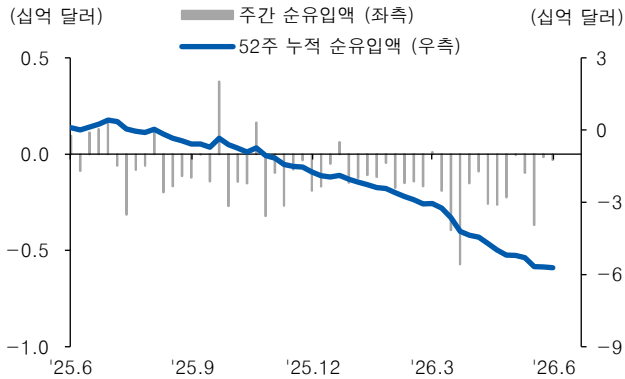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41. Industrials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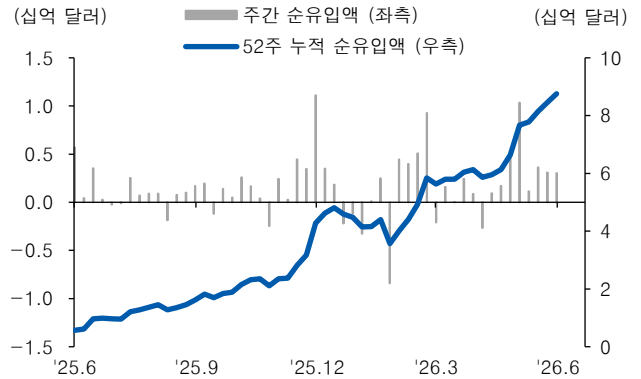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42. Real Estate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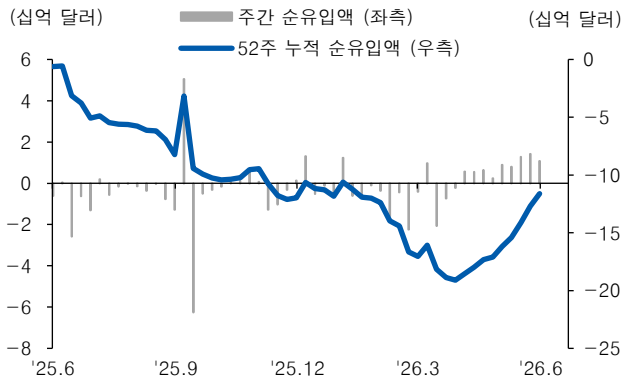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43. Real Estate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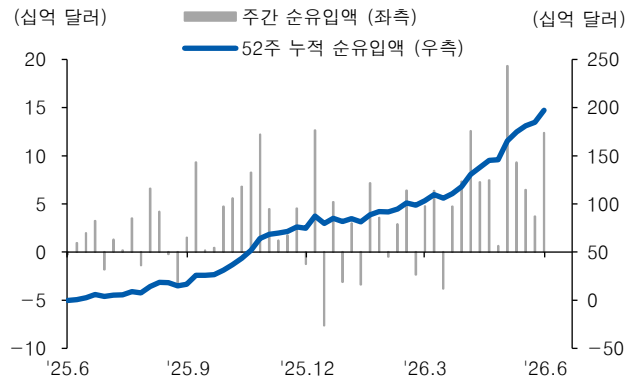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44. Tech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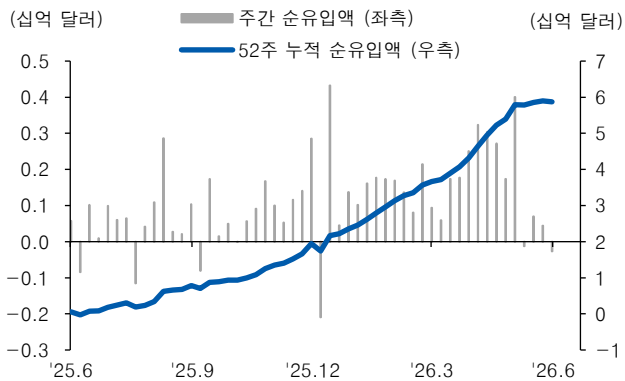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45. Tech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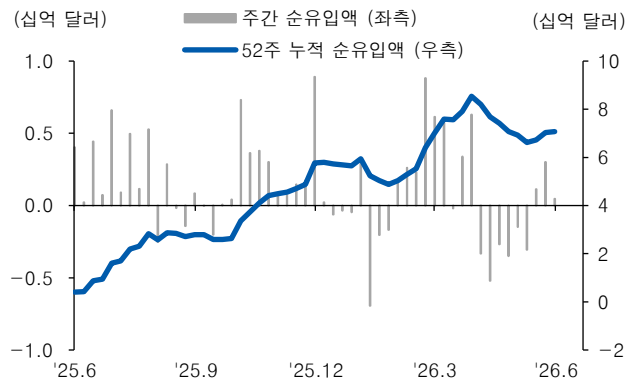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그림 46. Utilities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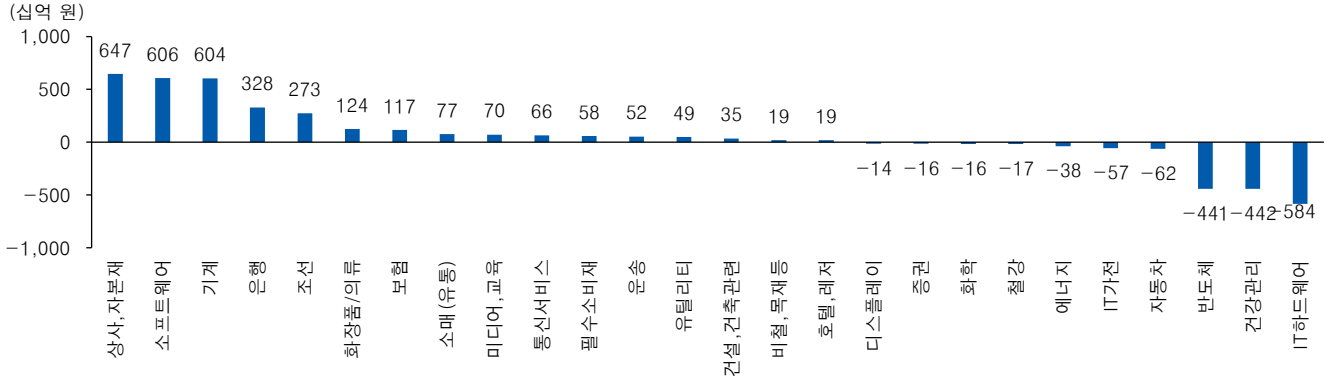
그림 47. Utilities 순유입 추이 - ETF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6-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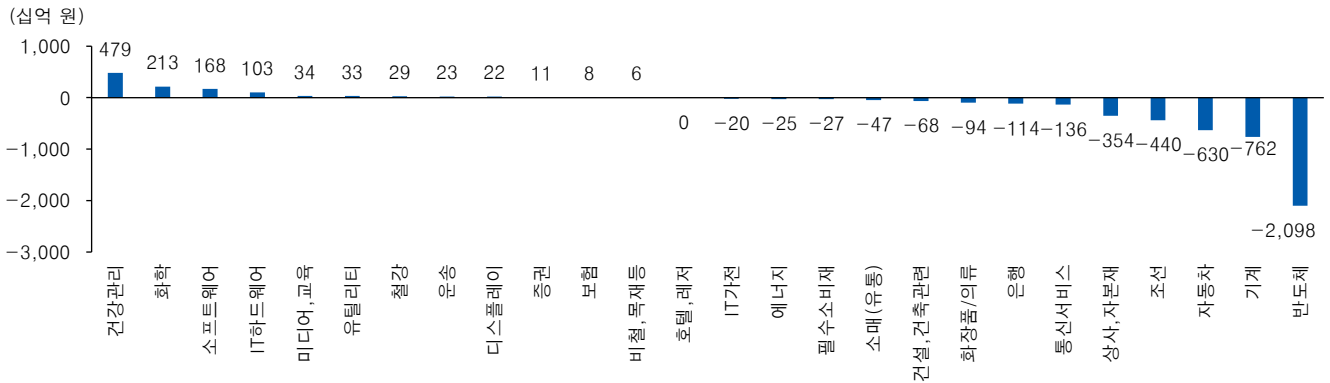
국내 주식시장 자금 동향

그림 48. 주요 주체별 매매동향: 기관 주간 순매수 (6월 8일 ~ 6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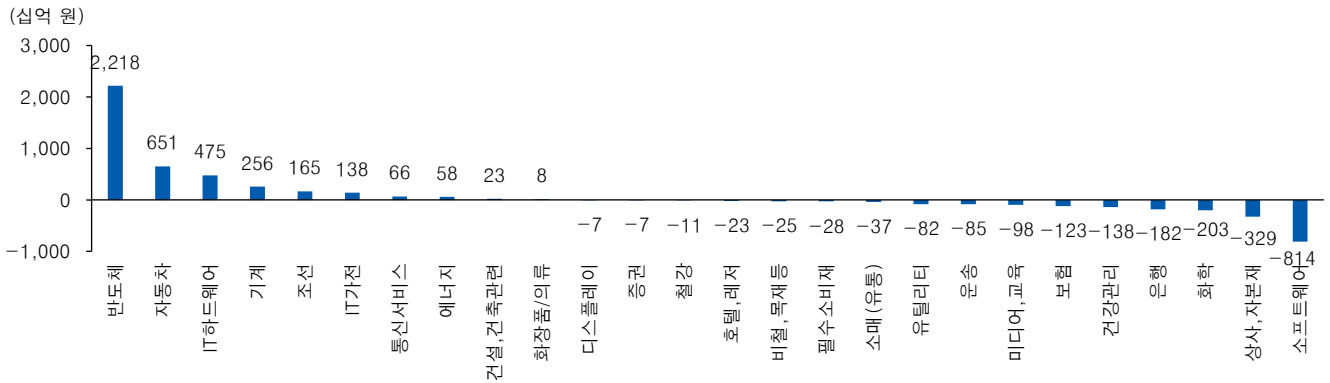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9. 주요 주체별 매매동향: 외국인 주간 순매수 (6월 8일 ~ 6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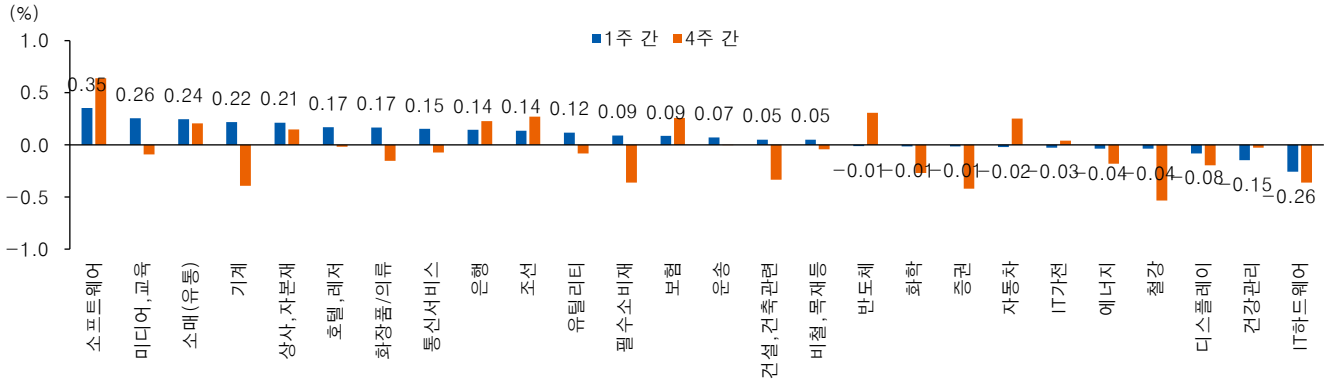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0. 주요 주체별 매매동향: 개인 주간 순매수 (6월 8일 ~ 6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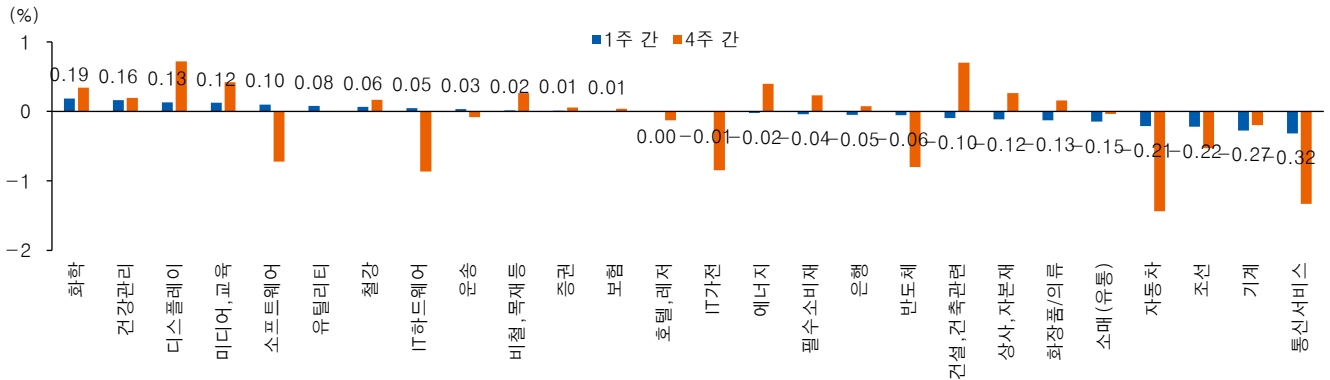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1. 주요 주체별 매매동향: 기관 주간 순매수강도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2. 주요 주체별 매매동향: 외국인 주간 순매수강도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표 3. KOSPI 및 KOSDAQ 주간 수익률 및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6월 8일 ~ 6월 12일)

KOSPI	기관 순매수 순위		개인 순매수 순위		외국인 순매수 순위		주간 수익률 순위		
	종목명	(십억원)	종목명	(십억원)	종목명	(십억원)	종목명	(%)	
상위 종목	1	SK 스캐어	1727.1	삼성전자	2700.0	삼성전기	258.6	후성	63.5
	2	NAVER	529.9	SK 하이닉스	1651.4	LIG 디펜스엔에어로스페이스	158.0	미래산업	54.9
	3	한미반도체	517.5	현대차	809.2	삼성 SDI	142.2	미래에셋생명	52.2
	4	HD 현대일렉트릭	387.2	삼성전기	741.6	NAVER	138.1	엠앤씨솔루션	39.0
	5	DB 하이텍	267.3	LG 전자	169.7	LS ELECTRIC	124.0	이수화학	36.4
	6	대덕전자	148.1	LS ELECTRIC	122.7	후성	100.9	케이씨텍	33.4
	7	HD 건설기계	115.5	두산로보틱스	122.0	기아	98.6	한전 KPS	31.4
	8	HD 현대마린솔루션	112.5	가온전선	113.0	LG 씨엔에스	87.0	태양금속	29.9
	9	이수페타시스	108.5	한화오션	112.5	LG	75.5	HS 화성	28.4
	10	HD 현대중공업	85.7	두산에너지빌리티	111.2	LG 이노텍	71.9	한미반도체	27.6
하위 종목	1	삼성전자	-2010.3	NAVER	-676.7	SK 스캐어	-1394.2	일정실업	-59.6
	2	SK 하이닉스	-1361.3	한미반도체	-518.0	삼성전자	-874.4	LG 전자	-25.6
	3	삼성전기	-1007.1	SK 스캐어	-315.9	현대차	-633.4	두산로보틱스	-21.3
	4	LS ELECTRIC	-248.6	기아	-135.9	SK 하이닉스	-409.5	LG 씨엔에스	-21.0
	5	현대차	-168.8	후성	-120.5	HD 현대일렉트릭	-296.4	KEC	-20.8
	6	가온전선	-146.0	LIG 디펜스엔에어로스페이스	-115.3	DB 하이텍	-218.9	성문전자	-19.1
	7	미래에셋증권	-106.2	LG 씨엔에스	-93.2	LG 전자	-162.2	NHN	-18.9
	8	두산	-104.4	HD 현대일렉트릭	-91.5	두산로보틱스	-158.1	현대오토에버	-18.2
	9	삼성 SDI	-83.5	LG 이노텍	-87.1	HD 건설기계	-153.8	대원제약	-17.8
	10	삼성바이오로직스	-79.6	대한항공	-69.3	SK 텔레콤	-137.5	가온전선	-17.8

KOSDAQ	기관 순매수 순위		개인 순매수 순위		외국인 순매수 순위		주간 수익률 순위		
	종목명	(십억원)	종목명	(십억원)	종목명	(십억원)	종목명	(%)	
상위 종목	1	원익 IPS	162.6	피스피스스튜디오	66.4	리노공업	567.8	화신정공	142.3
	2	브이엠	152.9	에코프로비엠	57.2	테크윙	90.7	CSA 코스믹	69.5
	3	현대무백스	129.5	펍트론	43.5	HPSP	69.7	서산	57.4
	4	심텍	113.1	서진시스템	32.3	알테오젠	64.0	크레오에스지	48.5
	5	주성엔지니어링	103.8	HLB	29.5	로보티즈	60.9	타이거일렉	47.9
	6	HPSP	100.2	레인보우로보틱스	25.2	파두	56.9	에이팩트	45.6
	7	리노공업	99.6	세미티에스	23.8	에코프로	35.6	피엠티	43.8
	8	테스	88.3	티엘비	19.45	리가젱바이오	34.8	브이엠	42.7
	9	서진시스템	84.8	엠케이전자	17.49	올릭스	32.8	HPSP	42.2
	10	피에스케이	76.0	주성엔지니어링	16.7	디앤디파마텍	32.0	원익 IPS	38.1
하위 종목	1	파두	-44.9	리노공업	-667.4	브이엠	-132.4	하이퍼코퍼레이션	-49.5
	2	디앤디파마텍	-42.9	HPSP	-163.2	주성엔지니어링	-111.4	네오이문텍	-36.0
	3	에코프로비엠	-38.1	테크윙	-108.4	원익 IPS	-102.0	캔버스엔	-32.6
	4	리가젱바이오	-37.1	현대무백스	-93.9	심텍	-91.8	코스모로보틱스	-32.1
	5	에스앤에스텍	-36.1	원익 IPS	-89.8	피에스케이	-80.3	피스피스스튜디오	-31.6
	6	올릭스	-34.1	휴림로봇	-70.6	비츠로셀	-60.0	에이비온	-30.5
	7	펍트론	-33.5	로보티즈	-64.6	하나마이크론	-53.9	마키나락스	-29.2
	8	에코프로	-33.2	테스	-50.5	오름테라퓨틱	-48.7	컬러레이	-27.1
	9	미코	-31.7	알테오젠	-48.2	미래에셋벤처투자	-47.0	모바일어플라이언스	-27.06
	10	피스피스스튜디오	-27.4	원익홀딩스	-43.4	테스	-40.8	손오공	-25.88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김용구)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